

문화광장



현승훈  
다량시 건축사사무소

### 새 시대의 보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인도의 타지마할 주변에는 45곳의 무굴 제국 시대 유적이 함께 존재한다. 이슬람 건축의 정수로 유명한 타지마할은 유지관리가 잘 되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유적지는 폐허에 가깝다. 폐허임에도 그곳은 지역 주민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유적의 공간 구조에 천막을 덧대어 만들어진 시장을 누비고, 어린이들은 부서진 담장 주위에서 뛰놀며 그들만의 놀이터를 만끽한다. 심지어 가족의 배설물을 가져 만든 건축 재료로 벽을 쌓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유

적이 원형을 보존하기는 어렵지만, 해체와 재구성을 거듭하며 활기를 띤다. 이곳 주민들에게 유적은 그들의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삶의 터전인 것이다. 그들은 현시대의 요구와 쓰임에 맞게 유적지를 점유하며, 건축물의 변형을 통해 지속하는 새로운 보존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보존은 국가 차원의 제도에 의해 관리되는 하향식 정책에 의한 것과 구분되는,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존과 관련된 연구와 건축 작업으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라훌 메로트라(Rahul Mehrotra) 교수는 유적을 매개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현상 이야기를 한다. 역사적인 건축물에 주민들의 일상이 깊숙이 개입하

는 현상을 통해 '물질적 실체와 문화적 행위가 공존하는 방식의 보존'을 강조한다. 건축과 문화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통합된 하나의 차원에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해석한다. 경외시하는 대상 자체를 온전하게 보호해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이어가는 문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제주의 구도심 옛 마을에는 오랜 시간 축적돼 온 문화가 있다. 건축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짧은 시간 소비되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배어가는 문화의 산물'인 것이다. 오래된 건물을 당연하듯이 철거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아 온 문화를 스스로 말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다. 반대로 옛 건물의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는 방법이 축적된 문화를 이어가는 유일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서문시장 건너편, 덕훈이공원은 지난 60여 년 동안 부러리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던 사랑방과 같은 곳이었다. 이제 그 쓰임을 다해 방치된 공간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 쉼터로 바뀌는 중이다. 구조 안전성 문제로 철거될 뻔했던 옛 건물은 현행 기준에 맞게 철골로 보강하고, 벽체를 과감히 허물어 비움의 옛 기억과 양뿔나무 생태를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돼가고 있다. 2025년, 덕훈이공원의 옛 온기가 변화된 이곳에서 다시 불 지펴질 수 있을까. 건축물은 말없이 새로운 세대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열린마당

### 고향사랑기부로 함께하는 '제주오름 지킴이'



양은옥  
제주시 공원녹지과

제주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으로 '오름아 걱정마! 우리가 지켜줄게! 나도 오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오름 지킴이 사업은 제주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산불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오름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탐방객이 많이 찾는 주요 오름에 국산 목재를 이용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모금기간을 올해 1월부

터 모금액 1억원을 목표로 지정기부사업 기금 활동을 추진했다. 직원들의 홍보와 전 국민의 관심으로 3월 현재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에 따라 다목적 오름 쉼터도 올해 내 설치가 마무리될 것이다. 오름지킴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준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2000만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NH농협은행, 농·축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뉴스-in

### "탄소중립 부합 새로운 불빛축제로 거듭"

들불축제로 기대감 피력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도청에서 열린 3월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복지와 행정,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축제를 언급. 오 지사는 오는 14~16일 새별오름 일원에서 불 놓기 대신 새롭게 단장한 프로그램으로 치러질 제주들불축제로 대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빛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며 "더욱 자신감을 갖고 시대에 맞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 이어 "각종 축제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동력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공직자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진선희기자

○...경찰청이 그동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운영했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제주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 지난 2년간 시범 운영 결과, 경찰은 254명(스토킹 125, 가정폭력 54, 교제폭력 43, 성폭력 8, 기타 24)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도출. 경찰은 "앞으로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사설

### 제주 외국인관광객이 늘긴 늘었는데...

올 1월 방한 외국인관광객 10명 중 1명이 제주를 찾았다. 제주관광공사의 2025년 1월 관광객 입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12만 1132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8% 증가했다. 제주외국인관광객(111만 7243명)의 점유율은 10.8%였다. 작년 9월(12.8%) 이후 10%대를 회복했다. 제주 외국인관광객은 20만명을 돌파했던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고,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8월 13.6%, 9월 12.8%였다가 10월 1.3%로 급락했다. 이후 11월 8.9%, 12월 8.6%에 머물렀다. 외국인관광객 수와 점유율은 단순 수치에 불과하다. 중국, 홍콩 등 중화권으로 쏠림 현상도 썩 반갑지만은 않다. 11만명에 육박하며 무려 90%나 차지했다. 중국인만 9만 6964명

에 이른다. 외국인이 증가한 만큼 내국인은 빠졌다. 올 2월까지 외국인관광객은 잠정 23만 4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다. 내국인은 184만여 명에서 161만 6000여 명으로 12.2% 줄었다. 제주관광의 현주소다. 내국인관광객 감소는 해외여행 증가를 비롯 항공편 축소와 여행 패턴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항공 좌석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외 발길을 돌린 내국인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다라는 보장은 없다. 외국인관광객 다변화는 언감생심이다. 내국인 시장 회복과 해외시장 확장세 지속을 위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은 미지수다.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의 혼란이 변수다. 업계의 자구노력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 구상나무 보전 국제협력회의 준비 철저히

구상나무는 한국 특산종이다. 한라산, 지리산, 무등산 등에서 자생한다. 가장 많이 자생하는 곳은 한라산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현재는 멸종 위기종이다. 1918년 1168.4ha였던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100여 년이 지난 2021년에는 606ha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00년대 들어 구상나무 숲의 변화가 가속화됐다. 기온 상승과 태풍, 가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2006년 이후에는 연평균 감소율이 급증해 구상나무 숲의 쇠퇴가 더 심화됐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의 구상나무는 80% 이상이 고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숲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력력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오는 9월 국제연합산림연구기관(IUFRO) 산하 '2025 기후 위기와 침엽수림 관

리 국제 학술회의'가 열린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조직위원회를 꾸려 가동 중이다. 학술회의는 9월 15~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된다. 25개국 400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회의다. 공식 일정 이후에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 현장 답사도 이어진다. 제주도는 학술회의를 통해 한라산 구상나무 등 야고산대 침엽수림 보전 노력을 국제 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이뤄져야 고부적이다. 구상나무 복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번 회의에는 산림 분야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만큼 연구 성과와 경험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다. 제주도는 철저한 회의 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2>당 선</h2> <h3>동홍새마을금고 이사장</h3>  <p><b>오철봉</b></p> <p>동홍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p> <p><b>정자·숙자·인숙</b> (고모네 가족 일동)</p>	 <h2>당 선</h2> <h3>동홍새마을금고 이사장</h3>  <p><b>오철봉</b></p> <p>동홍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p> <p><b>MG동홍파크골프클럽</b> 회장 고석권 외 회원 일동</p>	 <h2>취 임</h2> <h3>서광초등학교 교장</h3>  <p><b>우정훈</b></p> <p>부: 우두봉·모: (재)정금란 배우자: 좌은주</p> <p>서광초등학교 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p> <p><b>형제자매 일동</b> 우 훈 우차훈 우희자 우범훈 우범용 서정미 양현수 강용덕 양진숙 홍지선</p>	 <h2>취 임</h2> <h3>우도초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우도면민 회장</h3>  <p><b>여찬현</b></p> <p>여찬현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p> <p><b>우도초등학교 제33회 동창 일동</b></p>
--	--	--	--